

기고

사이렌이 울리기 전

구급대원이 이르신 맥을 먼저 찾는 이유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술한 위급 현장을 누벼왔다. 구급대원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바빠 수 없는 보람이었지만, 화재 현장에서 다치신 분들을 이송할 때면 늘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불이 나기 전에, 다지기 전에 미리 맥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다.

지금 나는 강진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 소속으로, 후배 대원과 함께 구급차가 아닌 순찰차를 타고 관내 어르신들의 맥을 찾고 있다. 사후 처치가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잦아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운 봄철이 오면, 우리 순찰대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진다.

거동이 불편하신 독거노인을 비롯한 화재취약계층에게 불철 화재는 생존과 직결되는 치명적인 위협이다. 이에 우리 생활안전순찰대는 화재가 발생하기 전, 어르신들의 맥을 직접 찾아가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주택안전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낡은 전기 배선과 가스 누출 여부를 살피고, 초기 대피에 필수적인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을 무상으로 설치해 드리는 것이 주된 업무다.

구급대원으로서의 경험은 이 주택안전점검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단순히 안전 시설만 점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혈압이나 혈당 등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까지 함께 챙겨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후배와 함께 집안 구석구석의 화재 위험을 살핀 뒤, 어르신들의 거친 손을 잡고 건강과 안부를 묻는 시간. "소방관들이 집까지 와서 안전도 챙겨주고 건강도 봐주니 참말로 든든하오"라며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면, 구급 현장에서 생명을 구했을 때 못지않은 깊은 보람을 느낀다.

수많은 현장을 경험하며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다. 진정한 구조와 구급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 미리 위험을 차단하는 '예방'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화재 예방은 소방서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철을 맞아 내 집 주변의 화재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주변에 홀로 지내시는 이웃 어르신들께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올봄에도 강진소방서 생활안전순찰대는 사이렌이 울리기 전 가장 먼저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 단 한 명의 다치는 사람도 없는 안전한 따뜻한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안경준

앞 호(316과 317)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루소는 『사회계약론』과 『에밀』의 출간으로 어려움에 빠졌고, 이 루소를 흠이 도와주었다. 그렇다면, 루소가 두 책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일반 의지'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의지(一般意志)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보편적인 이익이나 공공선을 추구하는 의지'인데, 각 개인은 이 '일반 의지'에 따라 자신의 자유와 평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한다. 이러한 루소의 견해는 지배자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개개인 상호간의 권리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볼 때는 매우 '불온'한 사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에밀』에서도 "어린이들에 대한 모든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역시 전통적이고 권위적인 당시 프랑스 사회 체제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리 짐작된다.

어떻든 좋은 분위기에서 만났던 흠과 루소 두 사람의 관계가 꼬이게 된 것은 영국에서 일어난 대반전(大反轉)으로

강성률 교수의 철학 이야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유튜브 '강성률 철학티비', '강성률 문학티비' 운영중



우정이 철천지 원수로-흠과 루소(3)

부터였다. 흠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던 데 비하여, 루소는 그야말로 찬양을 받았던 것이다. 『영국사』의 저자로 부와 명성을 손에 쥐고 공작에서도 많은 활약을 펼쳤던 (영국 출신) 흠이 (타국인 프랑스 출신) 루소로 인하여 빛을 잃게 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흠의 마음이 잔뜩 상해 있는데, 당시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루소마저 영동한 주장을 하고 나왔으니. "대중들은 속기 좋아하고, 흠은 그들을 속이기 위해 태어났다. 그의 초청은 나의 명성을 깎아 내리려는 비열한 음모였다!"

흠은 자신의 호의와 진심을 몰라준 채, 한바탕 악다구니를 쓰고 프랑스로 되

돌아가버린 루소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흠은 즉각 사건의 자초지종을 밝힌 소책자를 출간하여, 루소의 비방이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나중에는 루소를 맹비난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는 가장 사악한 인간이자 인간의 본성을 모독하는 가장 흉악한 악당이며, 심지어 거짓말쟁이에 잔인하고 파렴치한 인간이다!"

사실 흠은 보통의 회의론자(懷疑論者, 쉽게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 이미지, 가령 풍채가 빈약하고 남을 의심하는 눈초리에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입을 가진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의 얼굴은 둥글 넓적하고 살이 많이 찐 편이었으며,

입은 크고 우직한 느낌을 주었다. 누구든지 그의 모습을 보면, 거북이 요리를 먹고 있는 시의원을 대하는 느낌을 가질 만했다. 그러나 그가 파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사교계 부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얼굴이 못났음에도 미혼(未婚)인 까닭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성품이 느긋하고 선량했음은 분명했던 것 같다.

그런 그가 루소에 대해서만큼 자제력을 잃고 무너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이성(理性)으로 무장한 흠이 풍부한 감수성의 주인공 루소의 공격에 과민 반응을 보이더니, 1766년 여름, 흠은 평생 추구하던 중용(中庸)의 도를 벗어 버리며, 결국 '이성은 감정의 노예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거니와 이 대목에서 우리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유럽 궁정과 사교계를 발각 뒤집어놓은 '사상 초유의 스캔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일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는지, 흠을 잘 아는 사람들은 '미치광이' 루소 때문에 그의 성격이 변한 사실에 몹시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진화하는 신종 스캠, '아는 만큼' 보이고 '어서 끊는'만큼 안전하다

보이스피싱 범치는 날로 증가하며 그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다. 사람의 욕망과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신종 스캠(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최근 유행하는 사기 유형별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첫째, '투자리딩방' 사기를 경계해야 한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가짜 거래소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모르는 사람이 보내주는 링크(URL)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공식 검증된 거래소만

이용해야 한다. 둘째, 자영업자를 울리는 대리구매 사기 '일명 노소'다. 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단체 예약을 한 뒤 특정업체에서 물건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법이다. 공공기관은 절대로 개인에게 대리 결제나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결제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셋째, 팀미션 부업 사기이다. 광고 시청 등 간단한 임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해 처음에는 소액을 주며 신뢰를 쌓은 뒤 고수의 미션 참여를 빌미로 보증금이나 위약금을 요구한다. 과도한 수익 약속과 가입비·위약금·선납수수료 입금 요구시 차단해야 한다. 넷째, 연예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이다. SNS에서 외국 군인·의사·사업가를 사칭해 호감을 얻은 뒤 항공료나 통관비 등을 요구하고 짧은 기간 내에 사랑을 고백하거나 해외 거주자라며 만남을 미루고 투자 사이트 가입을 권유한다.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

의 발달로 피해자가 영상통화를 요청하면 사진 속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해 영상을 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로 속이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기꾼들은 우리의 '급한 마음'과 '이득을 보고 싶은 심리'를 이용한다. 가장 강력한 방어책은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은 즉시 '어서 끊는 것'이다. 만약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통합대응단(1394)에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 원도경찰서 읍내지구대 김일중 경감

오늘의 운세 2026년 3월 30일 월요일 (음력 2월 9일)

Grid of zodiac horoscopes for various signs including Rat, Ox, Tiger, Rabbit, Dragon, Snake, Horse, Goat, Monkey, Rooster, Dog, Pig.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Contact info for circulation and advertising.

Large advertisement for 'Goheung Spaceship Terminal' featuring a space-themed background, a person in a spacesuit, and text about a 'Space Festival' on May 2nd-5th, 2026.